

研究論文

# 쌍화점 결구 “덥거츠니”의 재해석

김태환

한국학중앙연구원 어문생활사연구소 선임연구원, 시가미학 전공  
suri4w@daum.net

- I. 머리말
- II. ‘덥거츰-’의 관련 형태
- III. ‘거츰-’의 의미
- IV. “잔” 사건의 진상
- V. 맺음말

## I. 머리말

『악장가사』에 전하는 「쌍화점」의 결구 “그 잔 디기디 뉘거즈니 업다”는 “그 자리에 나도 자라 가리라”고 돌출된 발화의 의의를 가사의 전체 맥락에서 강력하게 제약하는 궁극의 발화다. 따라서 「쌍화점」의 주제는 “그 잔 디기디 뉘거즈니 업다”를 벗어나 논의할 수 없으니, 관건은 특히 “뉘거즈니”에 달렸다. 일찍이 양주동은 “뉘거즈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주석을 붙였다.

뉘거즈니. 「뉘거츰」은 「뉘거츰」의 俗音, 「鬱」의 訓. - 鬱 뉘거츰 (石千千字·十八) - 「뉘거츰」은 略略 現行語 「답답ㅎ」에 該當하거나와 後者の 古形 「답가움」은 이 「뉘거츰」과 語根을 같이한다. [...] 「뉘거츰」 「답갑·답가움」 「답사ㅎ」乃至 「뉘」(暑)·「뉘」(蓋) 等語의 「답·뉘·뉘」은 모다 「鬱·積·悶」의 原義를 가짓다.<sup>1)</sup>

양주동은 ‘뉘거츰-’을 ‘뉘거츰-’과 통용된 형태로 보았고, 아울러 그 의미는 ‘답갑-’과 동일한 것으로 보았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의문을 제기할 만하다. ‘뉘거츰-’과 ‘뉘거츰-’은 음운이 서로 다른데, 이것을 통용된 형태로 간주할 수 있는가? ‘뉘거츰-’과 ‘답갑-’은 형태가 서로 다른데, 이것을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가?

양주동은 이상과 같은 우리의 의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지 않았다. 양주동의 주석에 보이는 몇 가지 용례는 그나마 ‘뉘거츰-’에 관한 것과 ‘답갑-’에 관한 것에 그쳤고, 정작에 ‘뉘거츰-’에 관한 것은 전혀 없었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반론에 대처할 만한 문증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던 것이다.

石千(18)에는 「鬱 뉘거츰」이라 있다. 이것은 唯一 例여서 그 存在가 의심된다. - 이 「뉘거츰」은 雙花店의 “뉘거즈니 업다”의 解釋에 引用되어 “「뉘거츰」은 「뉘거츰」의 俗音”(梁柱東, 麗謠箋注, 1947, p. 266)이라 생각되기도 했으나 法華經諺解(3.3)에서 「뉘거즈러」(蕪穢)가 발견됨으로써 이 語形의 正當性이 立證되었다(安秉禧, 麗謠二題, 한글 127, 1960, p. 84). 여기에 다음의 두 例를 더 追加할 수 있다. 小學諺解(5.26)에 “더런 넷기잇술은 뉘거즈러”(遲遲潤畔松鬱鬱)가 있으며 筆者가

1) 梁柱東, 『麗謠箋注』(乙酉文化社, 1947), 266-267쪽.

본 年代未詳의 善本 百聯少解(21)에도 “뜰그새 덧가지는 누늘 다내여 덩쳐츨렸고” (庭畔竹枝經雪茂)가 있다. 이리하여 이제는 오히려 「덧거츨」이 確立되기에 이르렀다.<sup>2)</sup>

이기문은 용례의 양적 차이로 보건대 ‘덧거츨-’에 비하여 ‘덧거츨-’이 도리어 정당한 형태에 속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양주동이 의거한 ‘덧거츨-’은 다양한 종류의 『친자문』에 거듭 나오고, 하물며 『대악후보』에 전하는 「쌍화점」의 제1장 가사에도 “덧거츨니”가 나온다.<sup>3)</sup> 더욱이 『악학편고』에 전하는 「쌍화점」은 “덧거츨니”와 함께 “덧거츨니”·“덧거츨니”가 나란히 적혔다.<sup>4)</sup> 그러니 ‘덧거츨-’을 ‘덧거츨-’과 통용된 형태로 보았던 양주동의 견해는 당시에 비록 유일한 용례를 들었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결코 그릇된 것이 아니다.

법화경 본문에, “덧거츨러”의 해당 귀절이 “蕪穢”로 나타남으로써 우리는 이 뜻을 쉽게 알 수 있다. 사원(辭源)에 “蕪穢”는 “草不治貌 猶言荒廢也”로 되어 있다. 따라서 “덧거츨-”의 뜻은 “(잡초 따위가)뒤엉켜어지다” 또는 “거칠다”이다. [...] 쌍화점의 “덧거츨니”는 정확한 기사로, “거친 것이” 또는 “정돈되지 못하고 어수선한 것이”의 뜻을 단언한다.<sup>5)</sup>

안병희는 단어의 대역관계로 보건대 ‘덧잡-’이 아니라 ‘거츨-’이 오히려 적당한 의미에 속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런데 안병희가 의거한 『법화경언해』 「약초유품」의 주해에 나오는 “蕪穢”는 이른바 약초에 속하지 못하는 인성의 저열한 품등을 비유한 말이다.<sup>6)</sup> 이것은 ‘어질다[善良]·맑다[淸淨]의 반대에 놓여서 ‘사납다[劣惡]·더럽다[汗濁]를 뜻하는 것이지, 본의에 그쳐서 다만 ‘거칠다[荒蕪]를 뜻하는 용례가 아니다. 이것을 또한 ‘어수선하다[錯亂]로 보기도 어렵다. 그러니 이러한 용례를 들어서 ‘덧거

2) 李基文, 「漢字의 釋에 관한 研究」, 『東亞文化』 제11집(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 1972), 250-251쪽.

3) 『大樂後譜』 6-11b.

4) 『樂學便考』 4-31b. ※ 제1장 가사에 적힌 “더마거츨니”의 “마”는 원고를 옮겨 적는 과정에서 받침으로 모아 적은 /ㅁ/·/ㅂ/을 잘못 적은 것이고, “조”는 /-/로 이끌린 /ㅈ/의 필세를 /ㅊ/로 잘못 적은 것이다.

5) 안병희, 「여요二제」, 『한글』 제127호(한글학회, 1960), 84쪽.

6) 『法華經諺解』 3-2a. 「藥草喻品」. “草 | 能治病을 名藥草 | 니 以喻人天善種과 三乘智因의 能遠害滅惡者 訶 시니 若四越惡種과 生死業因은 則徒爲蕪穢 訶야 非藥草矣니라.”

출-'과 '답갑-'을 동일한 의미로 보았던 양주동의 해석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문제의 '덫거츨-'은 고소설 『고후전』에도 그와 비슷한 형태가 보인다. 예컨대 “뽕남기며 산이 덫거츨러 성호고”의 문장에 “덫거츨러”가 적혀 있다.<sup>7)</sup> 그런데 『고후전』의 “덫거츨러”를 곧 ‘우거져서[蕪密]로 바꾸어 읽으면, 이것은 이내 명쾌한 이해를 낳는다. 그러나 「쌍화집」의 “덫거츨니”를 곧 ‘거친 것[荒蕪]이나 ‘어수선한 것[錯亂]으로 바꾸어 읽으면, 이것은 더욱 막연한 이해를 낳는다. 본의로 쓰이지 않은 탓이다.

문제의 '덫거츨-'에 관하여 우리가 얻고자 하는 최상의 해석은 반드시 이것을 저것에 바꾸어 넣어야 비로소 문리가 트여서 별도로 설명을 더하는 과정이 없어도 저절로 생동하는 어세와 그 취지가 이내 드러나는 바의 것이다. 양주동이 제시한 ‘답답한 것[鬱悶]은 그나마 이러한 요구에 매우 가깝다. 이 글은 그 이유를 밝히는 것으로써 작성의 목표를 삼는다.

양주동의 주석에 대한 안병희와 이기문의 반론은 『법화경언해』와 『소학언해』 및 『백련초해』에 나오는 ‘덫거츨-'의 용례를 확인한 뿐만 아니라 그 의미가 한어의 ‘蕪穢’ 및 ‘茂’·‘鬱’을 번역하는 위치에 있음을 확증한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이러한 확증을 토대로, 이하의 본문은 문제의 ‘덫거츨-'을 명쾌히 해석할 만한 근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이로써 「쌍화집」에 대한 이해의 정당한 기초를 다질 수 있기를 바란다.

## II. ‘덫거츨-'의 관련 형태

앞에서 언급한 『법화경언해』 「약초유품」의 주해에 나오는 ‘蕪穢’를 그 언해는 “덫거츨러”로 번역한 형태를 보이되, 동일한 주해를 저본으로 삼았던 『월인석보』의 언해는 “거츨오 :더러·버”로 번역한 형태를 보인다.<sup>8)</sup> 후자는 ‘蕪’를 ‘거츨-’로, ‘穢’를 ‘더럽-’으로 번역한 결과다. 그러면

7) 『高后傳』 4-35b. “즈춘이 들이 못혀여서 덕뒤에 니르니 풍경이 도쿄 뽕남기며 산이 덫거츨러 성호고 서적이 성히 니것는니라.”

8) 『法華經諺解』 3-3b. 「藥草喻品」. “四趣惡種·과 生死業因·은 혼갓 덫거츨러 藥草 | 아·니라.”; 『月印釋譜』 13-38a. “四趣의 구·즌·비·와 生死業因·은 혼갓 거츨오 :더러·버 藥草 | 아·니라.”

‘덥거칠-’의 ‘덥-’은 ‘더럽-’의 의미를 가지는 ‘덥-’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박병채는 ‘덥거칠-’을 ‘덥-’[染, 瀦]과 ‘거칠-’[荒]의 복합 어간으로 보았다.<sup>9)</sup> 그러나 이것은 ‘덥거칠-’의 관련 형태를 미처 살피지 않아서 비롯된 견해다. 표1은 ‘덥거칠-’의 관련 형태를 살피기 위하여 『천자문』의 여러 판본과 『신증유합』에 보이는 ‘茂’·‘鬱’의 훈석을 관련 한자의 훈석에 비추어 한데 모은 것이다.<sup>10)</sup>

표1-천자문(7)과 신증유합(1)의 여러 훈석

	① 東急(15**)	② 光州(1575)	③ 類合(1576)	④ 石峯(1583)
茂	덥싸울	덥거울	성홀	거칠
密	덥싸울	불	칙칙	빅빅홀
鬱	덥싸울	덥싸울	답답	덥싸출
荒	거칠	거칠	거칠	거칠
	⑤ 七長(1661)	⑥ 松廣(1730)	⑦ 註解(1804)	⑧ 茂實(1857)
茂	거칠	거칠	힘쁠, 성홀	거칠
密	빅빅홀	빅빅홀	빅빅홀, 비밀홀	빅빅홀
鬱	덥싸출	덥싸출	덥거출, 답답홀	덥거출
荒	거칠	거칠	클, 거칠	거칠

‘덥거칠-’이 『법화경언해』와 『소학언해』 및 『백련초해』에 있어서 ‘茂’·‘鬱’을 번역하는 위치에 놓였던 사실을 상기해 보건대, 다양한 종류의 『천자문』에 있어서 특히 ‘鬱’을 훈석하는 위치에 놓였던 ‘덥거칠-’은 당연히 저 ‘덥거칠-’과 더불어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단어다. 요컨대 ‘덥거칠-’의 ‘덥-’은 ‘덥거칠-’의 ‘덥-’과 더불어 교체될 수 있었던 형태다. 따라서 ‘덥거칠-’의 ‘덥-’은 결코 ‘덥-’[染, 瀦]이 아니다.

‘덥거칠-’의 ‘덥-’이 ‘덥거칠-’의 ‘덥-’과 더불어 교체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해명하기 어렵다. 양자는 의미의 차이가 전혀 없이 다만 음절의 말음 /ㅁ/과 /ㅂ/이 교체된 것이다. 일찍이 허용은 이러한 현상을 상통(相通)이라고 하였고, 유창돈은 대응(對應)이라고 하였다.<sup>11)</sup> 예컨대 ‘뎃|뎃’[漆],

9) 박병채, 『새로 고친 고려가요의 어석 연구』(국학자료원, 1994), 252쪽.

10) 『千字文』: ① 일본 大東急記念文庫 소장, ② 일본 東京大學 중앙도서관 소장, ④ 일본 國立公文書館 內閣文庫 소장, ⑤ 안성시청 문화체육관광과 소장, ⑥ 일본 天理大學 소장, ⑦ 규장각·국립중앙도서관 소장, ⑧ 장서각 소장; 『新增類合』: ③ 단국대학교 율곡기념도서관 羅孫文庫 소장.

‘돌판이|돌광이[蝸牛], ‘현마|혈마[幾量]의 두음 및 음절 사이나 말음 등에서 광범하게 일어난 교체의 종류를 말한다.

그런데 ‘鬱’을 혼석하는 위치에 놓였던 단어는 ‘덥거츨-’만 아니라 ‘덥거우-’의 ‘덥겁-’도 있었다. 우리는 여기서 ‘덥겁-’을 내세워 하나의 가정을 제기할 만하다. ‘덥거츨-’의 ‘덥-’이 ‘덥거츨-’의 ‘덥-’과 더불어 교체될 수 있었을 양이면, ‘덥거츨-’을 대신하여 한때 ‘鬱’을 혼석하는 위치에 놓였던 ‘덥겁-’의 ‘덥-’ 또한 \*‘덥겁-’의 ‘덥-’에 의하여 교체될 수 있었을 것이다. 예컨대 아래의 [예-1]은 우리의 이러한 가정과 유사한 조건을 통하여 동일한 현상을 일으킨 교체의 사례다.

[예-1.1] 如儒夫然 || ·섬·씨·운 :사·르·믹 :양·근더·라 (蘇小 10-12a)

[예-1.2] 如儒夫然 || ·섬·씨·운 :사·름·근·흐·뎃·허·더·라 (小學 6-111b)

[예-1]은 『번역소학』과 『소학언해』에 나오는 동일한 원문의 두 가지 번역을 가져온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 보이는 ‘덥겁-’의 ‘섬-’과 ‘덥겁-’의 ‘섬-’의 교체에 비추어 ‘덥겁-’의 ‘덥-’과 \*‘덥겁-’의 ‘덥-’의 교체를 유추할 만하다. 그러나 정작에 \*‘덥겁-’은 문증이 보이지 않으니, 우선은 ‘덥겁-’의 의미를 분석해 보아야 하겠다. 표2는 표1의 ‘덥겁-’을 대체한 여러 단어를 정리한 것이다.

표2-‘덥겁-’의 대체 양상

茂 : 덥겁-	거츨-(4), 성흐-(2)
密 : 덥겁-	칙칙(1), 빅빅흐-(2), 빅빅흐-(3)
鬱 : 덥겁-	덥씨츨-(3), 덥거츨-(2), 답답(1), 답답흐-(1)

표2에서 보건대 ‘덥겁-’을 대체한 여러 단어는 모두 ‘우거지다[蕪密]를 의미의 기저에 두었던 듯하다. 우거진 것이 지나쳐 마침내 거칠고, 우거진 것이 겹쳐서 마침내 뻑뻑한 것을 이룬다. 나아가 뻑뻑이 우거진 까닭에 막혀서 답답한 것이다. 거칠고 뻑뻑한 것은 사물의 양태에 속하고, 막혀서 답답한 것은 심기의 감정에 속한다. 전자는 특히 ‘茂’와 ‘密’을 혼석하는 위치에 쓰였고, 후자는 특히 ‘鬱’을 혼석하는 위치에 쓰였다.

그런데 여기서 ‘덥겁-’이 ‘鬱’의 ‘덥거츨-’과 ‘답답흐-’로 대체된 사실은

11) 許雄, 『國語音韻論』(正音社, 1959), 280-282쪽; 劉昌惇, 『國語變遷史』(通文館, 1961), 155-162쪽; 劉昌惇, 『李朝國語史研究』(宣明文化社, 1964), 145-150쪽.

\*덥겁'의 속성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서다. '덥거츰'에 대한 '덥거츰'의 대응을 들어서 '덥겁'에 대한 \*덥겁'의 대응을 재구할 수 있다면, 이러한 \*덥겁'은 곧 '덥갑'에 대응될 바로서 '덥갑'의 모음이 교체된 형태로 보아야 마땅할 것이다. 왜냐하면 '덥갑'이 또한 '답답ㅎ'의 의미를 지녔던 점에서 그렇다.

[예-2.1] 心悶欲死 〓 안히 답답·ㅎ·야 죽느·닐 (救急 上-2b)

[예-2.2] 悶能過小徑 〓 ·덥갑거·든 能·히 :저근·길호·로 :디나오면

(杜初 20-51b)

[예-2]에 보이는 “답답·ㅎ·야”의 ‘답답ㅎ-’와 “·덥갑거·든”의 ‘덥갑-’은 모두 ‘悶’을 번역한 말이다. 이로써 알 수 있듯이 ‘덥갑-’은 ‘덥겁-’과 마찬가지로 ‘답답ㅎ-’의 의미를 지녔으며, 이것은 특히 심기의 감정을 가리킨 경우다. [예-3]은 이처럼 특히 심기의 감정을 말하는 데 쓰였던 ‘덥갑-’의 용법을 더욱 뚜렷이 드러낸 사례다.

[예-3.1] 心不迷悶 〓 므스·미 :몰·라·덥갑·디 아·니ㅎ·리·니 (楞嚴 10-74a)

[예-3.2] 心神煩悶 〓 므스·미·덥가·오·닐 (救急 上-61b)

[예-3]에 보이는 “·덥갑·디”와 “·덥가·오·닐”의 ‘덥갑-’은 무언가 몰라서 어리석고 많아서 어지러운 까닭에 답답한 심경을 가리킨 말이다. 원문의 ‘迷’·‘煩’은 곧 ‘悶’의 원인에 속하니, ‘덥갑-’을 부르는 조건이 ‘昏迷’와 ‘煩多’에 있음을 여기서 짐작할 만하다. 이러한 ‘덥갑-’은 ‘덥가-’에 접미사 ‘-압-’이 붙어서 파생된 것이다.<sup>12)</sup> 중간에 발음 /l/가 탈락되면서 ‘-갑-’이 나왔다.

[예-4.1] 子驚悶絕 〓 아·드·리 :놀·라 ·덥·겨 주·고·문 (法華 2-201b)

[예-4.1] 攻心煩悶 〓 므스·몰 보·차 ·덥겨 ㅎ·릴 (救急 下-18b)

[예-4]에 보이는 “·덥·겨”의 ‘덥가-’는 무언가 놀랍고 두려운 것이 있거나

12) 예컨대 “므기-+-압->므겁-, 즐기-+-압->즐겁-, 므희-+-압->므희엄-” 등을 들 수 있으니, 접미사 ‘-압/엄-’은 흔히 “/i/ 모음으로 끝나거나 ㅍ음 /j/로 끝나는 동사어간”에 붙는다. 李賢熙, 「국어의 語中·語末 ‘ㄱ’의 성격에 대한 종합적 고찰」, 『한신논문집』 제4집(한성대학교 출판부, 1987), 236쪽.

조르고 보체는 바가 있어서 답답하게 시달리는 심경을 가리킨 말이다. ‘답답-’과 마찬가지로 ‘답기-’ 또한 ‘悶’을 번역하는 위치에 쓰였다. 그러나 ‘답답-’은 형용사의 하나로 보아야 할 것이나, ‘답기-’는 ‘답-’에 접미사 ‘-기-’가 붙어서 파생된 피동사의 하나다.<sup>13)</sup> 그러면 ‘답-’은 본디 어떠한 의미를 지녔던 말인가?

만약에 ‘답기-’에서 ‘답-’을 분리해 내려 한다면, 접미사 ‘-기-’가 없어도 ‘답-’이 하나의 어간으로서 온전한 기능을 발휘한 자취를 찾아야 할 것이다. 첩어로 파생된 ‘답답’·‘답답ㅎ-’의 바깥에 다시 활용의 자취나 합성의 자취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현재는 ‘답기-’에서 ‘답-’을 분리할 만한 적극적 용례를 찾기가 매우 어렵다. 아래의 [예-5]는 오로지 근사한 용례를 가져온 것이다.

[예-5.1] 烈士痛稠疊 || 烈士·이 슬·호미 답사·햏도다 (杜初 24-17b)

[예-5.2] 百卷文枕藉 || ·은 卷사 ·글워·리 답사·혀시니 (杜初 24-34a)

[예-5]에 보이는 “답사·햏도다”의 ‘답살-’은 ‘답-’에 ‘살-’이 붙어서 합성된 것이고, “답사·혀시니”의 ‘답살이-’는 ‘답살-’에 ‘-이-’가 붙어서 파생된 것이다. 원문의 稠疊은 여기서 ‘뽁뽁이 포개어 쌓이다’를 뜻하고, 枕藉는 여기서 ‘겹쳐서 어지럽게 쌓이다’를 뜻한다. 이것을 ‘답살-’과 ‘답살이-’로 번역한 점에서, 여기에 보이는 ‘답-’을 ‘답기-’의 ‘답-’과 동일한 형태로 간주할 만하다.

그런데 ‘답기-’의 ‘답-’은 흔히 거성을 나타내는 방점을 가지는 까닭에 이것을 ‘답살-’의 ‘답-’과 동일한 형태로 간주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답기-’의 ‘답-’이 중첩된 ‘답답ㅎ-’의 합성에 방점이 전혀 없으니<sup>14)</sup>, ‘답살-’의 합성도 예외가 아니다. 더욱이 ‘답살-’의 ‘답-’이 ‘쌓다’의 방식을 말하여 ‘포개다’·‘겹치다’를 뜻하는 한에는 양자를 동일한 형태로 보아야 마땅할 것이다.

[예-6.1] ·어마·니·미 드르·시·고 ·안·답·끼·샤 (月釋 21-217a)

13) ‘답기-’의 ‘-기-’를 어간 형태소로 이해할 만한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보건 때, ‘답-’과 ‘-기-’의 사이에 놓인 ‘-사-’은 ‘-기-’의 /ㄱ/을 경음으로 규정한 표기다.

14) ‘답기-’의 ‘답-’이 중첩된 ‘답답ㅎ-’는 흔히 한어의 ‘鬱鬱’과 더불어 대역관계를 보인다. 『杜詩諺解(初刊)』 11-6b. “鬱鬱匡君略 || :님금 고·티고·저 ·ㅎ던 謀略·이 답답·햏도·다”; 『杜詩諺解(重刻)』 1-58a. “孤舟增鬱鬱 || 외로윈 비에서 더욱 답답·ㅎ고”

[예-6.2] 藥이 發<sub>ㅎ</sub>야 ·안·답·겨 싸·해 그우·다·니 (法華 5-152a)

[예-6]에 보이는 “·안·답·끼·샤”와 “·안·답·겨”의 ‘안답기’는 ‘안<sub>ㅎ</sub>[心  
中·胸中]과 ‘답기’의 통사적 합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보다 한층  
강도가 높은 사례로 오늘날 흔히 쓰이는 ‘안타깝다’[煩悶] 또한 ‘안<sub>ㅎ</sub>’과  
‘답갑’의 합성에서 비롯된 단어다. 이것은 애초에 \*안<sub>ㅎ</sub>답갑’의 형식을  
떠였을 것이다. 심기의 감정을 가리켜 말하는 ‘답갑’은 그 낙착이 바로  
이 \*안<sub>ㅎ</sub>답갑’에 있었다.

우리가 이제까지 ‘답기->답갑’에 주목한 이유는 ‘덧겨출’을 대신하  
여 한때 鬱을 혼석하는 위치에 놓였던 ‘덧겁’이 여타 문헌에 가서는  
문득 ‘덧겨출’과 ‘답답<sub>ㅎ</sub>’로 교체된 데 있었다. 이렇게 ‘덧겨출’과 ‘답답  
ㅎ’로 교체될 수 있었던 점에서, ‘덧겁’은 ‘답답<sub>ㅎ</sub>’의 의미를 지니는  
‘답갑’과 더불어 필연적 관련을 보인다. 우리는 여기에 의거하여 ‘덧겁’  
에 대한 \*덧겁’의 대응과 \*덧겁’에 대한 ‘답갑’의 대응을 가정할  
수 있었다.

‘덧겁’은 ‘답+-기->답기+-압->답갑’의 과정과 ‘답갑-|\*덧겁-|  
덧겁’의 대응을 통하여 생성되었다. ‘덧겁’과 ‘답갑’은 서로 동일한  
단어다. 따라서 ‘덧겁’의 ‘덧’과 ‘답갑’의 ‘답’은 서로 동일한 형태다.  
그런데 이러한 ‘덧겁’이 한때 鬱만 아니라 ‘茂’와 ‘密’을 혼석하는 위치에  
놓였던 사실을 주의할 필요가 있으니, ‘덧겁’은 그 용법이 다만 심기의  
감정을 가리켜 말하는 데 그쳤던 것이 아니다.

‘답상’의 ‘답’에 비추어 ‘답기’의 ‘답’을 분리한 결과를 보아도, ‘답기’  
의 ‘답’은 ‘포개다’·‘겹치다’를 뜻하는 바였다. 이것은 당연히 사물의  
양태와 심기의 감정에 두루 적용할 수 있는 의미다. ‘답갑’에 대응된  
‘덧겁’이 ‘茂’와 ‘密’을 혼석하는 위치에 놓여서 사물의 ‘겨출’과 ‘빅빅<sub>ㅎ</sub>’  
를 아울러 가리킨 까닭은 여기에 있었다.

그러나 ‘답기->답갑’의 용례는 대개가 심기의 감정을 말하는 데  
쓰였다. 이것은 특히 ‘답기’의 ‘-기’가 지니는 속성에 기인한 듯하니,  
‘답기’는 사물이 사물에 끼치는 물리적 중첩을 표현하는 위치에 비하여  
사물이 인체에 끼치는 심리적 중압을 표현하는 위치에 자주 놓였다.  
‘덧겁’의 용법도 이러한 제약을 아주 벗어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 III. ‘거츨-’의 의미

앞에서 우리는 ‘딛거츨-’에 대한 ‘딛거츨-’의 대응을 들어서 ‘딛겹-’에 대한 \*‘딛겹-’의 대응을 재구하고, 아울러 \*‘딛겹-’을 곧 ‘딛갑-’에 대응될 바로서 ‘딛갑-’의 모음이 교체된 형태로 가정하여, 이로써 ‘딛겹-’의 의미를 고찰하는 단서로 삼았다. ‘딛겹-’은 사물의 양태를 가리켜 ‘우거지다[蕪密]를 뜻하는 바였고, 아울러 심기의 감정을 가리켜 ‘답답하다[鬱悶]를 뜻하는 바였다.

그런데 ‘딛겹-’과 다르게 ‘딛거츨-’의 용례는 대개가 사물의 양태를 가리켜 ‘우거지다[蕪密]를 뜻하는 데 쓰였다. 아래의 [예-7]에 보이는 ‘딛거츨-’의 용례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천자문』에 나오는 ‘딛거츨-’의 용례도 모두 그렇다. 이것은 ‘답-|담-’이 ‘답-’과 마찬가지로 ‘포개다’·‘겹치다’를 뜻할 뿐만 아니라 ‘거츨-’이 본디 사물의 양태를 말하는 단어로 성립된 까닭일 것이다.

[예-7.1] 蕪穢非藥草 || 딛거·츠·러 藥草 | 아·니·라 (法華 3-3b)

[예-7.2] 澗畔松鬱鬱 || :뉘: ㄱ·잇·소론 딛써·츠·러<sup>15)</sup> (小學 5-26a)

[예-7.3] 竹枝經雪茂 || 댕가지는 누늘 디내여 딛써츠르토 (百聯 單-24a)

‘딛거츨-’은 실제로 그 기저에 놓이는 의미가 사물의 ‘거츨-’과 더불어 동일한 단어다. 확실한 증거가 [예-7.1]의 “딛거·츠·러”에 보인다. 인성의 저열한 품등을 사물의 ‘거츨-’로 비유한 이 용례에서, 비유된 것은 ‘사납다[劣惡]·‘더럽다[汙濁]를 뜻하되, 비유한 것은 ‘너절하다[冗糲]를 뜻하니, 이것은 본디 사물의 ‘거츨-’을 말하는 ‘우거지다[蕪密]가 지극히 열악한 상태로 치우친 결과다. 그러면 「쌍화점」의 ‘딛거츨-’도 사물의 ‘거츨-’을 뜻하는 것인가?

雙花店에 雙花 사라 가고 신된 回回아비 내 손모글 주여이다  
이 말슴미 이 店 ㅂ긔 나명 들명 죠고맛감 샷기광대 네 마리라 호리라  
그 자리에 나도 자라 가리라 그 잔 ㄷᄃ티 딛거츠니 업다<sup>16)</sup>

15) 『翻譯小學』 6-28a. “:뉘: ㄱ·잇·소론 딛써츠러”

16) 『樂章歌詞』 上-7a.

여기서 우리는 「쌍화점」의 결구에 나오는 “그 잔 덕”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쌍화점」의 ‘덥거칠-’은 곧 “그 잔 덕”을 규정한 술어다. 요컨대 “그 잔 덕”은 ‘그곳이 가장 거칠다’라고 하는 심층구조를 통하여 ‘덥거칠-’을 의미관계의 술어로 가진다. 이러한 “그 잔 덕”은 남에게 비롯된 “나도 자라”의 의욕이 향후의 목적지로 겨냥한 그 “자리”[寢席]를 곧 “덕”[寢所]로 받아서 나에게 주어진 기왕의 장소로 가리킨 말이다. 우선은 장소의 성격을 규정한 셈이니, 이것은 사물의 ‘거칠-’에 속하는 바라고 하겠다.

그러나 “그 잔 덕”은 단순한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 “그”[其]라고 지시된 사건과 “잔”[寢]이라고 서술된 행위의 배경이 되었던 장소다. 장소에 결부된 사건과 행위의 본질을 아울러 규정한 이것은 당연히 사리의 ‘거칠-’에 속한다. 그리고 마침내 “가리라”의 의지를 표명하는 저쪽의 태도에 대하여 사건의 진상을 단호히 관정할 태세로 “덥거즈니 업다”고 반응한 이것 또한 심기의 ‘거칠-’에 속한다.

이렇게 보건대 「쌍화점」의 ‘덥거칠-’은 한갓된 사물의 ‘거칠-’을 넘어서 사리의 ‘거칠-’과 심기의 ‘거칠-’을 동시에 규정한 술어다. 따라서 다분히 중의성을 띠지만, 이러한 중의성을 통솔하는 구조적 추요가 문맥에 뚜렷하다. 그것은 “그 잔 덕”의 “그”[其]와 “잔”[寢]의 본질을 규정한 사리의 ‘거칠-’일 수밖에 없으니, 여기서 특히 “잔”[寢]은 「쌍화점」의 중심 화제를 이루는 바였다. 그러면 사리의 ‘거칠-’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 것인가?

사리의 ‘거칠-’은 어떠한 대상의 선악을 가리고 진위를 가려서 부정적 판단을 내리는 단어로 쓰였다. 선악을 가려서 부정적 판단을 내리는 ‘거칠-’은 곧 ‘거칠-’의 형태로 둘째 음절에 거성을 매겼다. 이것은 흔히 ‘蕪’·‘荒’과 더불어 대역관계에 놓인다. 진위를 가려서 부정적 판단을 내리는 ‘거칠-’은 곧 ‘거칠-’의 형태로 첫째 음절에 상성을 매겼고, 아울러 둘째 음절에 거성을 매겼다. 이것은 흔히 ‘妄’·‘僞’와 더불어 대역관계에 놓인다.

[예-8.1] 宗臣則廟食 後祀何疎蕪 || 큰 臣下·는 廟 지·서 享食·홀·디아·닐 後·엇 祭祀 | :엇데 ·드물·며 거·츠노 (杜初 22-44b)

[예-8.2] 飄零迷哭處 天地日榛蕪 || 飄零·헝야·든·너서 우·물·싸홀 迷失·호니 天地·나·날 거·츠노·다 (杜初 24-60b)

[예-8.3] 以勤事爲俗流 習之易荒 覺已難悔 || :일 브즈러니 :흙·오로·써 용·속흔 :뉴를 :삼·노·니 니·감·애 :수·이 거·츠노·디라 ·씩드라도 아·밧 :뉘·웃

[예-8.1]의 “거·츠뇨”는 ‘느즈러지다’[廢弛]를 뜻하니, 국가의 원훈에 대한 제사가 느슨히 그쳐서 없어지는 것을 탄식하는 문맥에 쓰였다. [예-8.2]의 “거·츠눗·다”는 ‘어지럽다’[混亂]를 뜻하니<sup>18)</sup>, 시절이 어지러워 어디를 마음대로 오가지도 못할 만큼 사방이 답답하게 막히는 것을 탄식하는 문맥에 쓰였다. [예-8.3]의 “거·츠리”는 ‘상스럽다’[粗野]를 뜻하니, 나태한 나머지 심사가 천박하게 되는 것을 경계하는 문맥에 쓰였다. 이러한 용례는 모두 선악을 가려서 부정적 판단을 내리는 ‘거·츨-’에 속한다.

[예-9.1] 指本無聲 耳本無聞 妄相感觸 故頭中作聲 || 슌가라기 본來 소·리 :업스·며·귀 본來 드·로·미 :업가·늘 :거·츠·리 서르 感觸홀·씩·이런·드·로·머·릿 中·에 소·리 :짓느·니 (楞嚴 3-5a)

[예-9.2] 觀性元眞 唯妙覺明 理絕精謂 不容妄度 || 性·을·보·건·덴 본來 眞·아·라 오·직 微妙홀 覺明·아·니 理 쁘·데 너·교·미 그·쳐 :거·츨·혜·요·물·드·라·디 :몬·호·릴·씩 (楞嚴 3-73b)

[예-9.3] 於命明中 分別精麤 疎決眞僞 因果相酬 || 命·을·불·긴 中·에 精·과 麤·와·를 分別호·며 眞·과 :거·츠·롬·과·를 글·히·야 決·호·야 因·과 果·왜 서르 갑느·니·라 (楞嚴 10-64a)

[예-9.1]의 “:거·츠·리”는 ‘터무니없다’[荒唐]를 뜻하니, 실상은 아무 까닭도 없이 생기는 심중의 사물을 가리킨 것이다. [예-9.2]의 “:거·츨”은 ‘그릇되다’[荒謬]를 뜻하니, 실제와 지각이 헛갈려 어긋난 인식을 가리킨 것이다. [예-9.3]의 “:거·츠·롬”은 ‘거짓되다’[荒誕]를 뜻하니, 진실한 대상에 대하여 허망한 대상을 가리킨 것이다. 이러한 용례는 모두 진위를 가려서 부정적 판단을 내리는 ‘:거·츨-’에 속한다.

선악을 가리는 ‘거·츨-’과 진위를 가리는 ‘:거·츨-’은 형태가 동일한 가운데 오로지 성조의 대립에 의하여 의미가 뚜렷이 구분된 사례의 하나다. 양자의 의미가 뚜렷이 구분된 것으로 말하면, 선악을 가리는 ‘거·츨-’과 진위를 가리는 ‘:거·츨-’은 별개의 단어로 보아도 무방할 듯싶다. 그러나

17) 『翻譯小學』 6-19b. “일 브즈러니·호·민·로 용·속·호·무·라·라 호·면 비·호·시·수·이 거·츠·러 아·라도 호·마 :뉘우·조미 어·려오니라”

18) 『杜詩諺解(初刊)』 24-60b. “榛蕪는 言亂也니라”

구분된 그 이면에 연속된 국면이 있음을 간과할 수 없으니, 양자의 구분은 ‘손[手]과 ‘손[客]의 대립과 같이 의미의 범주에 있어서 현격히 단절된 경우가 아니다.

선악을 가리는 ‘가·출-’과 진위를 가리는 ‘가·출-’은 어떠한 대상에 관하여 부정적 판단을 내리는 용법을 나누어 지니되, 전자는 특히 품질이 열악한 것을 가리켜 마침내 나쁘다를 뜻하고, 후자는 특히 본질이 허망한 것을 가리켜 마침내 ‘아니다’를 뜻한다. 여기서 이른바 본질의 허망한 것은 품질의 열악한 것이 가장 열악한 쪽으로 치우쳐 그 중점에 떨어진 결과다. 진위를 가리는 ‘가·출-’은 이처럼 선악을 가리는 ‘가·출-’에 내포된 최악의 극단을 차지할 뿐이지 단절된 별개의 개념이 아니다.

[예-10.1] 非量·은 尺·수·미 境·을 緣·흥 자·고 境·에 錯亂·하·야 : 거·츠·리 글·히·야  
 正·히 : 아·디 : 문·하·야 境·이 尺·수·매 맛·디 : 문·홀 ·씨 일·후·미 非量·아  
 라 錯亂·은 ·어·즈·라·불 ·씨·라 (月釋 9-8b)

[예-10.2] 尺·수·과 法·과 眞·가·지·로·되·갓·근 尺·수·로·보·면 : 거·츄· 境·이  
 ·어·즈·럽·고 眞·相·으로·보·면 眞·實·機· : 제·괴·의·하·니 (法華 5-21a)

[예-10.1]의 “: 거·츠·리 글·히·야”[妄辯]는 “·어·즈·라·불 ·씨”[錯亂]의 결과를 가리킨 것이고, [예-10.2]의 “·어·즈·럽·고”[紛拏]는 “: 거·츄· 境”[妄境]의 현상을 가리킨 것이다.<sup>19)</sup> 여기서 이른바 “·어·즈·라·불 ·씨”[錯亂]와 “·어·즈·럽·고”[紛拏]는 모두 선악을 가리는 ‘가·출-’에 속한다. 선악을 가리는 ‘가·출-’은 이처럼 진위를 가리는 ‘가·출-’의 직접적 원인을 이루고 가지적 속성을 이루는 요소다.

이렇게 보건대 ‘가·출-’과 ‘: 거·츄-’에 매겨진 성조의 차이는 단어를 구별한 표지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단어가 지나는 의미의 강도를 극점과 그 이하로 크게 양분한 방편적 경계의 표지다. 따라서 이러한 종류의 구분은 그것이 비록 ‘프·르-’와 ‘: 파·라-·퍼러-’의 대립과 같은 형태의 변화를 얻어서 별개의 단어가 되어도 궁극에 가서는 동일한 단어의 세분된 용법을 표시하는 기능에 그친다.

19) 『楞嚴經詔解』 2-14a. “臂體本一 由情執妄辯 法身本同 由正倒成異 || 불·히 體·는 本來  
 한·히어·늘 正·데 자·보·들·보·터 : 거·츠·리 글·히·며 法·身·이 本來 眞·가·지어·늘 正·하·  
 며 尺·수·로·보·들·보·터 달·이 尺·의·하·니·라”

[예-11.1] 遠還靑 Ⅵ : 멀오 도로 프·르·도·다 (杜初 14-38a)

[예-11.2] 寒仍緣 Ⅵ : 서늘코 프·르건마·른 (杜初 14-31b)

[예-11.3] 山更碧 Ⅵ : 뵈히 가·식·여 프·르도·다 (杜初 7-24b)

[예-12.1] 蘆箏緣 Ⅵ : ·궤 :우미 ·파라·호도·다 (杜初 6-51b)

[예-12.2] 莓苔靑 Ⅵ : 이·시 ·퍼러·호도·다 (杜初 6-17b)

[예-11]과 [예-12]는 비록 형태와 성조가 모두 달라도 의미의 범주가 동일하고 지대가 인접한 데 말미암아 상호 간 대립의 경계가 느슨히 무너져 혼착된 사례다. 의미가 서로 연속된 성질을 지니는 단어의 무리는 이러한 현상을 일으킬 수밖에 없으니, ‘가·출·’과 ‘가·출·’의 구분은 ‘프·르·’와 ‘파라·’·‘퍼러·’의 혼착에 견주어 그 귀추를 예측할 수 있겠다. 그러면 ‘가·출·’이 ‘답·’·‘덤·’을 앞세워 ‘덧거출·’·‘덧거출·’로 합성될 경우의 성조는 어떠한 변화를 겪는가?

표3-‘디나가·’의 성조 변화

<sup>2</sup> 디 <sup>1</sup> 나 <sup>1</sup> 가-	6	<sup>-0</sup> 느 <sup>-1</sup> 니(1), <sup>-1</sup> 느(1), <sup>-0</sup> 느(1), <sup>-0</sup> 똥 <sup>1</sup> 다(2), <sup>-0</sup> 던(1)
<sup>2</sup> 디 <sup>0</sup> 나 <sup>1</sup> 가-	20	<sup>-0</sup> 느 <sup>-1</sup> 니(4), <sup>-0</sup> 느(2), <sup>-0</sup> 느(1), <sup>-0</sup> 똥 <sup>1</sup> 다(2), <sup>-0</sup> 도 <sup>1</sup> 다(1), <sup>-0</sup> 리 <sup>1</sup> 라(1)
<sup>1</sup> 디 <sup>0</sup> 나 <sup>1</sup> 가-	2	<sup>-0</sup> 던(1), <sup>-0</sup> 도 <sup>0</sup> 다(1)
<sup>0</sup> 디 <sup>0</sup> 나 <sup>1</sup> 가-	2	<sup>-0</sup> 매(1), <sup>-0</sup> 느(1)

표3은 『두시언해』 초간본을 통틀어 총 30개에 이르는 ‘디나가·’의 성조를 조사한 것이다.<sup>20)</sup> ‘디나가·’는 ‘디나·’[經過]와 ‘나가·’[進行]만 아니라 ‘디·’[落]·‘나·’[出]·‘가·’[去]로 제가꿈 활동할 수 있는 요소를 결합한 까닭에 ‘가·출·’이 ‘답·’·‘덤·’을 앞세워 ‘덧거출·’·‘덧거출·’로 합성될 경우의 성조를 미루어 살피는 데 더없이 유익한 형태다. 요컨대 ‘디나가·’는 3개 요소가 2층 구조로 결합한 용언의 합성인 까닭에 ‘답·’·‘덤·’과 ‘가·출·’의 합성이 겪었을 성조의 변화를 참작하기에 충분한 것이다.

표3은 어간에 잇달아 겹치는 거성의 생략과 어간의 말음에 놓이는 거성의 존속을 가장 두드러진 값으로 가진다. 전자의 생략은 ‘디나가·’로

20) 『杜詩諺解(初刊)』 19-39b, 8-15a, 14-15a, 25-40b, 11-37b, 7-10b. ‘디·나·가·’; 7-20a, 10-25b, 15-21a, 17-31a, 17-38b, 22-1b, 23-15b, 24-52a, 25-19b, 19-31b, 6-14b, 22-14a, 10-26b, 21-19b, 6-30b, 8-38a, 10-17b, 11-39b, 23-35a, 23-49a. ‘디나·가·’; 22-3b, 23-28b. ‘디나·가·’; 24-57a, 14-16a. ‘디나·가·’

‘上平去’의 율동을 보이니<sup>21)</sup>, 이로써 ‘\*:덟거·출-!\*:덟거·출-’을 재구할 만하다. 후자의 존속은 ‘디나·가-’로 ‘平平去’의 율동을 보이니, 이로써 ‘\*덟거·출-!\*:덟거·출-’을 재구할 만하다. 여기서 전자의 ‘\*:덟-!\*:덟-’은 이것을 본디 ‘덟·가-’의 ‘덟-’에 대응된 형태로 거성을 전제한 것이나, ‘디나-[經過]의 ‘디-[陷]를 근거로 상성을 매겼다. ‘디-[陷]는 본디 거성을 가지되<sup>22)</sup>, ‘디나-[經過]의 ‘디-’는 거의 예외없이 상성을 가진다.<sup>23)</sup>

그리고 ‘\*:덟거·출-!\*:덟거·출-’과 ‘\*덟거·출-!\*:덟거·출-’에 있어서 ‘거·출-’의 상성이 탈락된 것은 거성을 가지는 ‘나·가-’와 경우가 다른데, 이것은 ‘화·’·‘감-’과 결합할 경우의 ‘돌-’로써 그 방증을 삼을 수 있겠다. 예컨대 ‘훗·돌-’·‘값·돌-’의 ‘돌-’도 성조의 변화는 ‘훗·돌·아’·‘값·도·라’의 형태로 ‘거·출-’과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sup>24)</sup> 이 밖에 성조의 보수성이 컸던 ‘파·다가’·‘늘’·‘들’·‘히’ 등과 결합할 경우에 겪었던 성조의 변화도 “·날·마·다”·“·히·마·다”의 형태로 ‘거·출-’과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sup>25)</sup> 이러한 사례는 모두 ‘\*:덟거·출-!\*:덟거·출-’과 ‘\*덟거·출-!\*:덟거·출-’의 재구를 가능하게 하는 유력한 근거다.

우리는 이제까지 「쌍화점」의 ‘덟거출-’을 특히 사리의 ‘거출-’로 해석하는 관점에서 선악을 가리는 ‘거·출-’과 진위를 가리는 ‘거·출-’의 의미를 고찰하여 보았다. 두음의 성조를 다르게 가지는 ‘거·출-’과 ‘거·출-’은 하나의 단어가 지니는 의미의 강도를 극점과 그 이하로 크게 양분한 형태다. 여기서 그 극점은 진위를 가리는 ‘거·출-’이 홀로 놓이고, 이하는 선악을 가리는 ‘거·출-’과 모든 사물의 ‘거출-’이 함께 놓인다. 표4는 이러한 이해를 토대로 ‘거출-’의 의미와 그 구분을 통틀어 나타낸 것이다.

선악을 가리는 ‘거·출-’은 ‘느즈리지다[廢弛]·어지럽다[混亂] 및 ‘상스럽다[粗野] 등을 뜻한다. 이것은 ‘너절하다[冗雜]·추레하다[淺陋] 등과

21) 이것은 거성이 잇달아 세 차례 겹치게 됨을 꺼려서 중간의 거성을 소거한 결과다. 이러한 ‘去聲不連三’의 규칙은 “氣息群”의 “語末”을 기점으로 삼아 “音聲 實現의 段階”에서 작용하는 까닭에 “形態論的 制約”을 거의 받지 않았다. 金完鎭, 『中世國語聲調의 研究』(塔出版社, 1977), 77-78쪽.

22) 『杜詩諺解(初刊)』 15-35a. “디거·든”; 6-50a. “·디논”; 11-50a. “·디눗·다”

23) 『楞嚴經諺解』 3-76b. “·디·나·늘·뇨”; 3-59a. “·디·나·논”; 8-54a. “·디·나·뉘”

24) 『楞嚴經諺解』 10-7b. “훗·도·논”; 10-13b. “훗·도·라”; 『杜詩諺解(初刊)』 7-34a. “훗·도·눗·다”; 25-16a. “훗·돌·아”; 『法華經諺解』 7-140b. “값·도·습·고”; 7-162b. “값·도·락·사·고”; 7-88b. “값·도·로·뉘”; 7-138b. “값·도·라”

25) 『翻譯小學』 8-7a. “·일·일·마·다”; 9-2a. “·일·일·마·다”; 9-81b. “·늘·마·다”; 9-9b. “·날·마·다”; 6-5a. “·날·마·다”; 9-14b. “·날·마·다”; 6-7b, 10-25b. “·날·마·다”; 9-16b. “·들·마·다”; 9-9b. “·들·마·다”; 9-15a. “·히·마·다”

표4-‘거칠-’의 의미와 그 구분

양태	선악	진위	감정
우거지다 → 뻑뻑하다 → 막히다	어지럽다 → 너절하다 → 추레하다 느즈러지다 상스럽다	터무니없다 → 어처구니없다 그릇되다 거짓되다	아늑하다 → 으스스하다 답답하다 → 안타깝다
← 겹치다 ← 포개다	← 더럽다 ← 사납다	← 아룻하다	← 쓸쓸하다 ← 딱하다

더불어 하나의 무리를 이루고, ‘더럽다[汙濁]·사납다[劣惡] 등과 가까운 이웃을 이룬다. 진위를 가리는 ‘거칠-’은 ‘터무니없다[荒唐]·그릇되다[荒謬] 및 ‘거짓되다[荒誕] 등을 뜻한다. 이것은 ‘어처구니없다[虛荒]와 더불어 하나의 무리를 이루고, ‘아룻하다[怪異]와 가까운 이웃을 이룬다.

선악을 가리는 ‘거칠-’은 이로써 단순히 사물의 양태를 가리켜 말하는 용법도 아울러 지닌다. 그러나 대개는 그 용도가 모종의 가치에 관하여 부정적 판단을 내리는 데 있으니, 단순히 사물의 양태를 가리켜 말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예컨대 ‘어지럽다[混亂]를 들어서 말하면, 이것은 ‘눈발’·‘깃발’ 등과 같은 몇 가지 대상에 대하여 심미적 표현의 일부로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용도의 대개는 ‘가지런하다[整飾]의 반대에 놓이는 부정적 가치를 천명하는 경우에 속한다.

진위를 가리는 ‘거칠-’은 선악을 가리는 ‘거칠-’이 가장 열악한 쪽으로 치우쳐 그 종점에 떨어진 결과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선악을 가리는 ‘거칠-’은 사물의 ‘거칠-’이 가장 열악한 쪽으로 치우친 결과다. 선악을 가리는 ‘거칠-’은 마침내 ‘나쁘다’를 뜻하는 말이니, 이것은 대상의 본질이 극소한 채로나마 아직 잔존한 상태다. 진위를 가리는 ‘거칠-’은 마침내 ‘아니다’를 뜻하니, 이것은 대상의 본질이 전무한 상태다.

사물과 사리의 ‘거칠-’은 심기의 ‘거칠-’을 부르는 원인을 이룬다. 우거진 것은 ‘아늑하다[安穩]의 감정을 부르고, 뻑뻑이 막힌 것은 ‘답답하다[鬱悶]의 감정을 부르고, 터무니없는 것은 ‘안타깝다[煩悶]의 감정을 부르니, 이것은 직접적 인과다. 이 밖에 ‘쓸쓸하다[荒涼]의 감정은 사물의 ‘거칠-’이 지나쳐 사람의 종적이 소외된 지경에서 나오고, ‘딱하다[憫憫]의 감정은 사리의 ‘거칠-’이 지나쳐 사람의 품위가 위축된 상황에서 나오니, 이것은 간접적 인과다.

#### IV. “잔” 사건의 진상

「쌍화점」의 ‘덫거칠-’은 곧 “그 잔 덕”을 규정한 술어다. 앞에서 이미 논급한 바지만, “그 잔 덕”은 ‘그곳이 가장 거칠다’라고 하는 심층구조를 통하여 ‘덫거칠-’을 의미관계의 술어로 가진다. 단순히 물리적 장소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그”[其]라고 지시된 사건과 “잔”[寢]이라고 서술된 행위의 본질을 규정한 점에서, 「쌍화점」의 ‘덫거칠-’은 사리의 ‘거칠-’을 의미의 기축으로 삼는다. 그러면 이것은 선악을 가리는 ‘거칠-’일 것인가, 아니면 진위를 가리는 ‘거칠-’일 것인가?

「樂章歌詞」「樂學便考」「大樂後譜」의 세 문헌에서 ‘덫’은 각기 상이한 형태로 표기되었으나 ‘거츠니’에는 변함이 없다. ‘덫 → 덫 → 덫’이 接辭인지 冠形語인지 그 의미가 ‘뿔인지’ ‘뿔인지’ ‘뿔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 核心은 ‘거츠니’에 확실하다. 여기서 ‘덫거칠-’을 〈蕪·穢·鬱·荒·僞·妄〉의 그 무엇으로 볼 수도 있다. 그 전부를 複合한 의미이면 더욱 좋다. 非眞이며 非實이며 非美 그 전부요 謬認이요 惡意이다. “그 잔 덕 덫거츠니 업다”는 “그 소문 ‘왔다’고 하는 것 같이 謬認이며 답답한 것이 없다”는, 眞實을 謬認하는 자들 앞에서 眞實을 말할 수도 없는 답답한 심정을 토로한 것이라 하겠다.<sup>26)</sup>

윤영옥은 「쌍화점」의 ‘덫거칠-’을 진위를 가리는 ‘거칠-’로 보았다. 이것은 지극히 타당한 견해다. ‘덫거칠-’을 ‘蕪·穢·鬱·荒·僞·妄’의 하나이거나 그 복합으로 정의한 대목은 논리적 비약이 따르고 있지만, 아울러 “非眞이며 非實이며 非美 그 전부요 謬認이요 惡意이다”로 판정한 내용은 또한 직관적 추론에 기대고 있지만, 적어도 ‘非眞’·‘謬認’과 ‘답답한 심정’을 지적한 그 결론은 연구사 전체의 압권에 두어야 마땅할 것이다. 윤영옥의 견해가 지극히 타당한 이유는 대체로 두 가지다.

우선은 상황과 맥락의 필연적 요구를 들어야 하겠다. 「쌍화점」의 “나도 자라 가리라”에 나오는 “나도”의 ‘-도’에 주목해보건대, 이것은 제1화자가 말하는 “내 손모글 주여이다”의 사건을 자기도 한번 경험하고자 바라는 제2화자의 말이다. 이러한 제2화자를 향하여 “그 잔 덕 덫거츠니 업다”는 말로써 사건의 진상을 단호히 판정할 주체는 반드시

26) 尹榮玉, 『高麗詩歌의 研究』(嶺南大學校出版部, 1991), 251-252쪽.

제1화자일 것이다. 제2화자나 제3화자는 결코 그렇게 판정할 수 없으니, 경험자의 처지든 피해자의 처지든 반드시 당사자의 입장에 있어야 그것이 가능한 까닭이다.

- [의혹] 회회아비 내 손모글 주여이다 ↓
- [소문] 조고맛감 샷기광대 네 마리라 호리라 ↓
- [미혹] 나도 자라 가리라 ↓
- [해명] 덮거츨니 업다 ↑

그런데 제1화자가 말하는 “내 손모글 주여이다”의 사건은 “샷기광대 네 마리라 호리라”의 조건이 매겨져 있으니, 그것은 어디까지나 “샷기광대”를 거쳐서 전달된 의혹의 내용일 뿐이지 사건의 진상이 아니다. 진상에 속하는 것은 다만 “雙花店에 雙花 사라 가고 신된”의 “가고 신된”(→가 있으니까)에 명시된 ‘쌍화점에 가 있었다’의 사실일 뿐이다.<sup>27)</sup> 여기에 ‘쥐었다’의 억울한 의혹과 ‘잡다’의 터무니없는 소문이 달라붙었고, 여기에 또 ‘자겠다’의 미혹된 동조가 겹쳤다. 따라서 상황과 맥락이 모두 의혹과 소문의 당사자를 부른다. 반드시 당사자의 해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제1화자는 경험자의 처지가 아니라 피해자의 처지다. 피해자인 까닭에 그이가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의혹과 소문에 대하여 내리는 판정은 당연히 진위를 가리는 ‘거·츨-’일 것이지, 선악을 가리는 ‘거·츨-’이 아니다. 만약에 선악을 가리는 ‘거·츨-’로 보아 ‘나쁘다’의 뜻으로 가져갈 양이면, 「쌍화점」의 결구는 ‘그 잔 데 같이 나쁜 것 없다’가 되어 ‘잡다’를 이미 인정한 발화가 되어 버린다. 자고서 ‘그것이 가장 나쁘다’고 한다면, 이것은 얼마나 우습고 싱거운 말인가?

표5-‘덮거츨-’의 관련 맥락과 의미

	사건 · 상황 / 판단 · 감정
맥락	해명 (←미혹 (←소문 (←의혹 )))
의미	거칠다 (→막히다 (→터무니없다 (→안타깝다) ))

27) “가고 신된”의 “신된”은 ‘시-+-ㄴ된’의 구조다. 여기서 ‘시-’는 ‘이시-’와 함께 ‘있-’[有]을 뜻하는 형태다. 『樂學軌範』 5-8a. 「牙拍·動動」 四月章. “므슴다 錄事 니몬 넷 나를 닛고 신더”; 『翻譯小學』 10-31a. “엇디 내 벼슬호여 신 저거나 벼슬 업슨 저거나 사라 이신 저거나 주근 저거나 혼 가지로 흠만 ㄹ트리오”

그러나 「쌍화점」의 결구를 ‘그 잔 데 같이 아닌 것 없다’로 읽어서 ‘잔다’를 힘써 부정한 발화로 보건대 비로소 생동하는 어세와 그 취지가 드러나게 된다. 신분이 여자인 제1화자는 이른바 ‘잔다’고 하는 사실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아니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저 ‘덧거늘’은 억울한 의혹에 ‘안타깝다’를 뜻하는 말이고, 와전된 소문에 ‘터무니없다’를 뜻하는 말이다. 아울러 미혹된 동조에 ‘막히다’를 뜻하는 말이니, 소문이 어지럽게 퍼지는 그 와중에 진상을 해명할 만한 통로가 또한 가로막혀 있었던 탓이다.

다음은 당시의 비평과 그 권위를 들어야 하겠다. 「쌍화점」 전4장의 가사는 고려 충렬왕 때에 비롯된 속악 「삼장」(三藏)과 「사룡」(蛇龍)의 가사로 더불어 동일한 취지를 보인다. 「쌍화점」 제2장의 가사는 또한 태반이 「삼장」의 가사와 동일한 내용을 지녔다. 기록된 언어가 다를 뿐이다. 그런데 일찍이 서포는 「삼장」과 「사룡」의 문학적 가치를 다음과 같이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三藏과 有蛇라는 두 가곡은 高麗 忠烈王 때에 나왔다. 그 詩에, ‘三藏寺에 香을 사르러 갔더니, 社主가 내 손을 쥐더라. 아마도 이 말이 절박에 나가든, 上座의 네 말이라 하리라고 하였고, ‘듣자니 뱀이 용의 꼬리를 물고, 泰山 마루를 넘어간 일이 있다네. 萬人이 저마다 한마디씩 말해도, 斟酌은 두 사람 마음에 있어라고 하였다. 그 語辭가 비록 粗俗하기는 하지만 오히려 古意를 지녔다.’<sup>28)</sup>

서포가 예거한 「삼장」과 「사룡」의 가사는 본디 한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고려사』에 기재될 수 있었다.<sup>29)</sup> 그러나 여기서 이른바 ‘語辭가 비록 粗俗하기는 하지만’이라고 한 구절은 가사의 내용에 관하여 그 통속성을 지적한 것이지 기록된 언어의 국적을 지적한 발언이 아니다.<sup>30)</sup>

28) 金萬重, 『西浦先生集』 2-11a. 「樂府」序. “三藏有蛇二歌出於高麗忠烈王時. 其詩曰, 三藏寺裡燒香去, 有社主兮執余手. 倘此言兮出寺外, 謂上座兮是汝語. 有蛇銜龍尾, 聞過太山岑. 萬人各一語, 斟酌在兩心. 其語雖俚而殊有古意.”

29) 「삼장」의 성립과 그 성격 및 「쌍화점」과 「삼장」의 관계 등의 문제는 다음과 같은 연구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되었다. 朴煥圭, 「高麗俗樂 三十一篇에 대하여」, 『한국언어문학』 제3집(한국언어학회, 1965), 125-142쪽; 呂運弼, 「雙花店 研究」, 『국어국문학』 제92집(국어국문학회, 1984), 61-85쪽; 崔龍洙, 「三藏·蛇龍歌」, 『韓民族語文學』 제13집(韓民族語文學會, 1986), 421-444쪽.

30) 서포의 의고 「악부」와 그 서문에 담긴 비평적 견해에 관한 논의는 다음과 같은 연구를 참조할 만하다. 趙潤美, 「高麗歌謠의 受容樣相」, 梨花女子大學校 碩士學位論文(1987), 28-41쪽; 金碩會, 「쌍화점의 발생 및 수용에 관한 전승사적 고찰」, 『語文論志』 제6·7

서포의 본의는 ‘오히려 古意를 지녔다’에 핵심이 있으니, 그것이 비록 세간의 음란한 일을 어쩔 수 없이 말하고 있기는 해도 ‘오늘날 사람의 되바라진 뜻과는 다르다’고 보았다. 서포는 자신의 이러한 이해를 다음과 같이 읊었다. 다음은 서포가 특히 「삼장」을 의방하여 읊어낸 「악부」(樂府) 제1수다.

그대는 三藏 經義를 講解하고,  
 나는 諸天에 꽃을 뿌린다.  
 天花는 어지러이 내리기를 아직 다하지 않았는데,  
 우물가 오동나무에서 새벽 갈까마귀가 운다.  
 外人의 말이야 옳으나 그러나 근심하지 않으니,  
 찻물을 나르던 沙彌가 한 무리라.<sup>31)</sup>

서포의 「악부」 제1수 결구의 ‘찻물을 나르던 沙彌가 한 무리라’와 「삼장」 제4구의 ‘上座의 네 말이라 하리라’는 취지가 서로 동일한 시구다. 서포는 여기에 ‘外人의 말이야 옳으나 그러나 근심하지 않는다’를 덧붙여 취지를 더욱 뚜렷이 새겼다. 이것은 「삼장」 제2구의 ‘社主가 내 손을 쥐더라’와 제4구의 ‘上座의 네 말이라 하리라’의 행간을 새롭게 드러낸 것이다. 「삼장」을 통하여, 서포는 이처럼 외로이 결백을 주장하는 한 여자의 의연한 심사와 그 언어의 질박한 것을 읽었다.

의혹과 소문은 다만 상좌와 더불어 한 통속이 되었던 소인배 무리가 퍼뜨린 것이다. 따라서 결코 근심할 바가 아니다. 이것은 「삼장」의 문의와 그 행간에 대한 서포의 이해다. 서포의 ‘오히려 古意를 지녔다’라는 평기는 여기서 나왔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쌍화점」의 문의를 바르게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시할 만한 비평적 견해다. 「삼장」은 그 표현이 매우 간술한 데 비하여, 「쌍화점」은 제삼자의 미혹된 동조와 재차에 걸친 당사자의 해명을 덧붙여 취지를 더욱 강조한 것이 그와 다를 뿐이다.

이른바 ‘쌍화점’이 만두를 파는 곳이든 아니면 고리를 파는 곳이든<sup>32)</sup>,

집(忠南大學校 國語國文學科, 1990), 65-81쪽; 鄭雲采, 「三藏과 蛇龍의 遠心力과 求心力」, 『국어교육』 제83집(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1994), 343-370쪽.

31) 金萬重, 『西浦先生集』 2-11a, 「樂府」. “君演三藏經, 妾散諸天花. 天花撩亂殊未央, 井上梧桐啼早鴉. 不愁外人說長短, 傳茶沙彌是一家.”

32) 쌍화는 만두가 아니라 ‘살고리’일 것이라는 고증이 근래에 새롭게 나왔다. 어강석, 「構造

그곳은 여자가 가정을 위하여 언제나 반드시 드나들 수밖에 없는 곳이다. 가게와 절 및 우물 등이 모두 그렇다. 언제나 반드시 드나들 수밖에 없는 거기에 갔었다는 사실만으로 “잔” 사건의 의혹과 소문이 따르게 된다면 마침내 성한 여자가 드물게 될 것이다. 이것은 지독한 난세를 겪는 때라도 누구나 다 민망히 여기게 마련일 것이니, 「쌍화점」은 이러한 이유에서 세간의 야비한 인심에 맞서 의연히 결백을 주장하는 한 여자의 억울한 심정과 그 탄식을 담았다.

## V. 맺음말

「쌍화점」이 만약에 한낱 음사에 지나지 않았을 양이면, 영조대 문헌 『대악후보』에 그것이 다시 수록되어 나타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정음」과 「동동」 및 「자하동」이 또한 『대악후보』에 수록되어 있지만, 이러한 악곡은 음사로 지탄을 받을 만한 내용이 없어도 이미 가창에 쓰이지 않게 되어 가사가 전혀 없이 오직 기악곡 형태의 악보만 적혔다. 「쌍화점」은 이들과 다르게 여전히 유력한 전승의 동인을 지니고 있었다.

「쌍화점」은 의연히 결백을 주장하는 한 여자의 억울한 심정과 그 탄식을 담았다. 문면에 비록 세간의 음란한 일을 어쩔 수 없이 말하고 있기는 해도 악장에 넣어 손색이 없을 만큼 떳떳한 성정을 표현한 노래다.<sup>33)</sup> 결구의 “그 잔 텃거즈니 닳거즈니 업다”는 이것을 가장 뚜렷이 개진한 발화다. 그러나 저 ‘닳거즈니’은 오늘날 도리어 가장 난해한 구절이 되어 다양한 해석과 적잖은 논란을 낳았다.<sup>34)</sup>

的 相關性으로 본 雙花店, 『古典文學研究』 제38집(한국고전문학회, 2010), 241-278쪽.

33) 음란한 일을 서슴지 않고 드러낸 이것은 어디까지나 부분의 필요일 뿐이지 전체의 목적이 아니다. 따라서 그 가사를 산개한 자취가 비록 왕조실록에 들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을 전체에 대한 부정의 결과로 개략하는 태도는 마땅히 개선해야 할 것이다. 『成宗大王實錄』 240-18b. 「21年 5月 21日」. “先是, 命西河君任元濬, 武靈君柳子光, 判尹魚世謙, 大司成成倪, 刪改雙花曲履霜曲北殿歌中淫褻之辭, 至是, 元濬等撰進. 傳曰, 令掌樂院, 肄習.”

34) 기존의 해석은 「쌍화점」을 한낱 음사로 규정된 점에서 공통된 견해를 보였다(崔美汀, 「雙花店の 解釋」, 『韓國文學史의 爭點』, 集文堂, 1986, 248-261쪽; 李正善, 「雙花店の 구조를 통해 본 性的 욕망과 그 의미」, 『大東文化研究』 제71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0, 113-141쪽). 이 밖에 음사의 기원을 고대의 제의에 비추어 해석한 연구도 있었다. 許南春, 「雙花店の 우물 용과 샛기광대」, 『沖嬌語文研究』 제2집, 반교어문학회, 1990, 154-178쪽; 강명혜, 「豐饒의 노래로서의 雙花店」, 『古典文學研究』 제11집, 한국

‘덥거츨-’은 15세기 이후의 문헌을 통틀어 보아도 그 용례가 매우 드물다. 더욱이 『악학궤고』에 전하는 「쌍화점」의 가사에 “덥거츨니”와 “덥거츨니”·“덥거츨니”가 나란히 적혔던 점으로 보건대, ‘덥거츨-’은 18세기 이후로 오면서 거의 쓰이지 않았던 듯하다. 일상에 흔히 쓰이던 바라면 한자리에서 것처럼 표기가 여러 가지로 바뀌는 현상은 없었을 것이다.

‘덥거츨-’과 ‘덥거츨-’은 모두 한어의 ‘茂’·‘鬱’을 훈석하는 위치에 놓였다. 따라서 ‘덥거츨-’과 ‘덥거츨-’은 서로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단어다. ‘덥거츨-’의 ‘덥-’과 ‘덥거츨-’의 ‘덥-’은 의미의 차이가 전혀 없이 서로 교체될 수 있었던 형태다. 그리고 이러한 ‘덥거츨-|덥거츨-’의 대응과 함께 주목할 바로서, ‘덥겁-’은 또한 ‘鬱’을 훈석하는 위치에 놓여서 ‘덥거츨-’과 ‘답답ㅎ-’로 교체될 수 있었다.

‘덥거츨-’의 ‘덥-’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덥겁-’은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단어다. ‘덥겁-’은 ‘답-+-가->답가-+-압->답갑-’의 과정과 ‘답갑-|\*덥겁-|덥겁-’의 대응을 통하여 생성되었다. ‘덥겁-’은 사물의 양태를 가리켜 ‘우거지다[蕪密]를 뜻하는 바였고, 아울러 심기의 감정을 가리켜 ‘답답하다[鬱悶]를 뜻하는 바였다. ‘덥거츨-’은 여기서 전자의 의미를 기저로 가진다. 이것은 ‘덥-|덥-’이 ‘답-’과 마찬가지로 ‘포개다’·‘겹치다’를 뜻할 뿐만 아니라, ‘거츨-’이 본디 사물의 양태를 말하는 단어로 성립된 까닭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는 어디까지나 본의에 지나지 않는다.

「쌍화점」의 ‘덥거츨-’은 한갓된 사물의 ‘거츨-’을 넘어서 사리의 ‘거츨-’과 심기의 ‘거츨-’을 동시에 규정한 술어다. 「쌍화점」의 이른바 “괴잔 티”는 “그곳이 가장 거칠다”는 심층구조를 통하여 ‘덥거츨-’을 의미관계의 술어로 가진다. 단순히 물리적 장소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괴[其]라고 지시된 사건과 “잔[寢]이라고 서술된 행위의 본질을 규정한 점에서, 「쌍화점」의 ‘덥거츨-’은 특히 사리의 ‘거츨-’을 의미의 기축으로 삼는다.

사리의 ‘거츨-’은 어떠한 대상의 선악을 가리고 진위를 가려서 부정적 판단을 내리는 단어로 쓰였다. 선악을 가리는 ‘거츨-’은 곧 ‘거·츨-’의 형태로 둘째 음절에 거성을 매겼다. 이것은 흔히 ‘蕪’·‘荒’과 더불어

고전문학회, 1996, 71-93쪽).

대역관계에 놓인다. 진위를 가리는 ‘거·출-’은 곧 ‘가·출-’의 형태로 첫째 음절에 상성을 매겼고, 아울러 둘째 음절에 거성을 매겼다. 이것은 흔히 ‘妄’·‘僞’와 더불어 대역관계에 놓인다.

진위를 가리는 ‘가·출-’은 선악을 가리는 ‘거·출-’이 가장 열악한 쪽으로 치우쳐 그 종점에 떨어진 결과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선악을 가리는 ‘거·출-’은 사물의 ‘거·출-’이 가장 열악한 쪽으로 치우친 결과다. 선악을 가리는 ‘가·출-’은 품질이 열악한 것을 가리켜 마침내 ‘나쁘다’를 뜻하는 말이니, 이것은 대상의 본질이 극소한 채로나마 아직 잔존한 상태다. 진위를 가리는 ‘가·출-’은 본질이 허망한 것을 가리켜 마침내 ‘아니다’를 뜻하니, 이것은 대상의 본질이 전무한 상태다.

「쌍화점」의 ‘덫거출-’은 본문의 제1화자가 당면한 상황과 맥락의 필연적 요구로 보건대 진위를 가리는 ‘가·출-’의 의미로 해석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쌍화점」의 제1화자는 경험자의 처지가 아니라 피해자의 처지다. 피해자인 까닭에 그이가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의혹과 소문에 대하여 내리는 판정은 당연히 진위를 가리는 ‘가·출-’일 것이지, 선악을 가리는 ‘거·출-’이 아니다. 선악을 가리는 ‘거·출-’로 보아 ‘나쁘다’의 뜻으로 읽으면, 「쌍화점」의 결구는 ‘그 잔 데 같이 나쁜 것 없다’가 되어 ‘잡다’를 이미 인정한 발화가 되어버린다.

「쌍화점」의 결구는 반드시 ‘그 잔 데 같이 아닌 것 없다’로 읽어서 ‘잡다’를 힘써 부정한 발화로 보아야 비로소 생동하는 어세와 그 취지가 드러난다. 신분이 여자인 제1화자는 이른바 ‘잡다’고 하는 사실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아니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저 ‘덫거출-’은 억울한 의혹에 ‘안타깝다’를 뜻하는 말이고, 와전된 소문에 ‘터무니없다’를 뜻하는 말이며, 아울러 미혹된 동조에 ‘막히다’를 뜻하는 말이다.

일찍이 서포는 「삼장」을 통하여 외로이 결백을 주장하는 한 여자의 의연한 심사와 그 언어의 질박한 것을 읽었다. 「삼장」을 의방한 서포의 「악부」 제1수 결구의 ‘찾물을 나르던 沙彌가 한 무리라’와 「삼장」 제4구의 ‘上座의 네 말이라 하리라’는 취지가 서로 동일한 시구다. 서포는 여기에 ‘外人의 말이야 옳으나 그러나 근심하지 않는다’를 덧붙여 취지를 더욱 뚜렷이 새겼다. 이것은 「삼장」 제2구의 社主가 내 손을 쥐더라와 제4구의 ‘上座의 네 말이라 하리라’의 행간을 새롭게 드러낸 것이다.

의혹과 소문은 다만 상좌와 더불어 한 통속이 되었던 소인배 무리가

떠뜨린 것이다. 따라서 결코 근심할 바가 아니다. 이것은 「삼장」의 문의와 그 행간에 대한 서포의 이해다. 서포의 語辭가 비록 粗俗하기는 하지만 오히려 古意를 지녔다'는 평가는 여기서 나왔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쌍화점」의 문의를 바르게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시할 만한 비평적 견해다.

「쌍화점」은 그 전체를 「삼장」과 마찬가지로 한 여자의 자술로 보아야 옳을 것이다. 억울한 의혹을 말하는 “내 손모글 주여이다”는 간접 인용에 속하고, 미혹된 동조를 말하는 “나도 자라 가리라”는 직접 인용에 속한다. 이 글은 여기서 직접 인용에 속하는 “나도 자라 가리라”를 제2화자의 발화로 가정하는 논의를 보였다. 그러나 이것은 다만 작품의 세부에 대한 분석의 편익을 위한 것이지 결코 전체의 실상에 대한 규정이 아니다.

「쌍화점」의 주제는 여자의 정조를 노래한 『시경·소남』 「행로」(行路) 장구와 동일한 성격을 가진다. 남자의 충의와 여자의 정조는 세태가 더욱 사납게 바뀌고 인심이 더욱 더럽게 젓어 흘러도 바꾸지 않고 지키던 옛사람의 신조다. 이것을 위하여, 「쌍화점」은 하물며 음란한 일을 그대로 입에 담아 말하는 데 조금도 서슴지 않았다. 결연한 그 태도가 “땃거츨니”에 두드러져 있으니, 문제의 ‘땃거츨-’은 곧 ‘아니다’의 범주에서 특히 ‘터무니없다’를 뜻하는 바였다.

## 참 고 문 헌

- 『高后傳』. 韓國學中央研究院 藏書閣 소장 필사본, 연도 미상.
- 『救急方診解』(韓國古典叢書 제VII책). 大提閣 영인, 1978.
- 『楞嚴經診解』. 大提閣 영인, 1985.
- 『大樂後譜』(韓國音樂學資料叢書 제1책). 國立國樂院, 1979.
- 『百聯抄解』. 韓國學中央研究院 藏書閣 소장 목판본, 연도 미상.
- 『繡譯小學』. 弘文閣 영인, 1984.
- 『法華經診解』. 大提閣 영인, 1977.
- 『分類杜工部詩診解』. 弘文閣 영인, 1988.
- 『西浦先生集』(『韓國文集叢刊』 제148책). 民族文化推進會 영인, 1996.
- 『成宗大王實錄』(『朝鮮王朝實錄』 제11책). 國史編纂委員會 영인, 1968.
- 『小學診解』. 大提閣 영인, 1974.
- 『新增類合』.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영인, 1979.
- 『樂章歌詞』(樂學軌範·樂章歌詞·教坊歌謠 合本). 亞細亞文化社 영인, 1975.
- 『樂學軌範』(樂學軌範·樂章歌詞·教坊歌謠 合本). 亞細亞文化社 영인, 1975.
- 『樂學便考』. 螢雪出版社 영인, 1976.
- 『月印釋譜』. 弘文閣 영인, 1984.
- 『註解千字文』.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영인, 1979.
- 『重刊杜詩診解』. 以會文化社 영인, 1992.
- 『千字文』(松廣寺板). 太學社, 1993.
- 『千字文』(李茂實本). 韓國學中央研究院 藏書閣 소장 복사본, 연도 미상.
- 『千字文』(일본 國立公文書館 內閣文庫 소장 목판본).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영인, 1979.
- 『千字文』(일본 大東急記念文庫 소장 목판본). 일본: 朝鮮學會(『朝鮮學報』 제93집) 영인, 1980.
- 『千字文』(일본 東京大學 中央圖書館 소장 목판본).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영인, 1979.
- 『千字文』(七長寺板). 안성시청 문화체육관광과 인출 목판본, 연도 미상.
- 강명혜, 「豊饒의 노래로서의 雙花店」. 『古典文學研究』 제11집, 한국고전문학회, 1996, 71-93쪽.
- 金碩會, 「쌍화점의 발생 및 수용에 관한 전승사적 고찰」. 『語文論志』 제6·7집, 忠南大學校 國語國文學科, 1990, 65-81쪽.
- 金完鎭, 『中世國語聲調의 研究』. 塔出版社, 1977.
- 박병채, 『새로 고친 고려가요의 어석 연구』. 국학자료원, 1994.
- 朴竣圭, 「高麗俗樂 三十一篇에 대하여」. 『한국언어문학』 제3집, 한국언어문학회, 1965,

125-142쪽.

안병희, 「여요二제」. 『한글』 제127호, 한글학회, 1960, 84-86쪽.

梁柱東, 『麗謠箋注』. 乙酉文化社, 1947.

어강석, 「構造의 相關性으로 본 雙花店」. 『古典文學研究』 제38집, 한국고전문학회, 2010, 241-278쪽.

呂運弼, 「雙花店 研究」. 『국어국문학』 제92집, 국어국문학회, 1984, 61-85쪽.

劉昌惇, 『國語變遷史』. 通文館, 1961.

\_\_\_\_\_, 『李朝國語史研究』. 宣明文化社, 1964.

尹榮玉, 『高麗詩歌의 研究』. 嶺南大學校出版部, 1991.

李基文, 「漢字의 釋에 관한 研究」. 『東亞文化』 제11집,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 1972, 231-269쪽.

李正善, 「雙花店의 구조를 통해 본 性的 욕망과 그 의미」. 『大東文化研究』 제71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0, 113-141쪽.

李賢熙, 「국어의 語中·語末 ‘ㄱ’의 성격에 대한 종합적 고찰」. 『한신논문집』 제4집, 한성대학교 출판부, 1987, 225-282쪽.

鄭雲采, 「三藏과 蛇龍의 遠心力과 求心力」. 『국어교육』 제83집, 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1994, 343-370쪽.

趙潤美, 「高麗歌謠의 受容樣相」. 梨花女子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87, 1-152쪽.

崔美汀, 「雙花店의 解釋」. 『韓國文學史의 爭點』. 集文堂, 1986, 248-261쪽.

崔龍洙, 「三藏·蛇龍放」. 『韓民族語文學』 제13집, 韓民族語文學會, 1986, 421-444쪽.

許南春, 「雙花店의 우물 용과 샛기광대」. 『泮矯語文研究』 제2집, 반교어문학회, 1990, 154-178쪽.

許雄, 『國語音韻論』. 正音社, 1959.

## 국 문 요약

「쌍화점」의 ‘덥거칠-’은 특히 사리의 ‘거칠-’을 의미의 기축으로 삼는다. 사리의 ‘거칠-’은 선악을 가리는 ‘거·칠-’과 진위를 가리는 ‘거·칠-’로 나뉜다. 진위를 가리는 ‘거·칠-’은 선악을 가리는 ‘거·칠-’이 가장 열악한 쪽으로 치우쳐 그 종점에 떨어진 결과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선악을 가리는 ‘거·칠-’은 사물의 ‘거칠-’이 가장 열악한 쪽으로 치우친 결과다.

「쌍화점」의 화자가 당연한 상황과 맥락의 필연적 요구로 보건대, 「쌍화점」의 ‘덥거칠-’은 진위를 가리는 ‘거·칠-’의 의미로 해석되어야 마땅하다. 「쌍화점」의 화자는 경험자의 처지가 아니라 피해자의 처지다. 피해자인 까닭에 그이가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의혹과 소문에 대하여 내리는 판정은 당연히 진위를 가리는 ‘거·칠-’인 것이지, 선악을 가리는 ‘거·칠-’이 아니다.

「쌍화점」의 결구는 반드시 ‘그 잔 데 같이 아닌 것 없다’로 읽어서 ‘짚다’를 힘써 부정한 발화로 보아야 비로소 생동하는 어세와 그 취지가 드러난다. 「쌍화점」의 화자는 이른바 ‘짚다’고 하는 사실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아니다’고 말했다. 「쌍화점」의 ‘덥거칠-’은 곧 ‘아니다’의 범주에서 특히 ‘더무니없다’를 뜻하는 말이다.

투고일 2012. 3. 18.

수정일 2012. 4. 30.

게재 확정일 2012. 5. 17.

주제어(keyword) 쌍화점(*Ssanghwajeom*), 삼장(*Samjang*), 사롱(*Saryong*), 덥거츠니(*deomkkeocheuni*), 덥거칠-(*deomkkeocheul-*)

